지역 소식통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복지 현장탐방교육

16일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복지 현장탐방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복지허브화의 성공모델을 정립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0여명의 복지허브화 담당자들이 방문했으며, 수송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과 각종 지역특화사업들에 대한 추진배경 및 애로사항 극복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감동복지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계획 수립, 실천하고자 하는 담당자의 의지,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새학기 특강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18일 한국경영리더십 컨설팅 대표 김형환 교수를 초정하여 리더십 특강을 연다.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자녀의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 코칭' 이라는 주제로 21세기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코칭 방법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형환 교수는 혁신경영, 부모리더십, 자기관리 등 다양한 자기계발 분야를 주제로 기업과 기관, 대학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모두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만전'

군산시가 수돗물 누수량을 낮추고 노후화 된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물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유수율 목표를 71%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약 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에 52억 원 ▲상수도관 누수지보수공사에 10억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 원 ▲노후·고장·동파계량기교체공사에 9억 원 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하수처리장 운영비 연 24억원 절감

시 "내년 추진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최선 다할 것"

익산시가 하수찌꺼기 처리의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가 16일 오후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형택·송호진 시의원, 임정희 동산동 발전협의회장, 김석중 익산시환경감시운동부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이상로 ㈜전북엔비텍 과장, 신가학 환경관리주식회사 소장, 옥용호 상하수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가 열리기 전 소각에서 알 수 없는 유해물질 발생을 우려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반대해 왔던 반대대책위 활동을 했던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해 정헌율 시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소각시설이 아닌 친환경적 녹색시설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방향 전환한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도 정책 사업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가 국가예산을 확보해 2018년부터 추진하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기존 소화조를 개량 또는 증설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40%이상 감소시키고 또한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한다.

용역수행사의 자료에 의하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21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하수찌꺼기 발생량 저감 및 메탄가스 활용 등으로 연24억원 정도의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투자회수기간도 8~9년으로 짧아서 익산시 하수찌꺼기 시급성, 경제성 및 환경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18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시민 눈높이 맞춘 행정추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16일 오후 종합상황실에서 정헌율 시장 주재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3일에 있었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 접수된 488건의 애로·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28개 부서가 참여했다.

해당 부서장들은 주민과의 대화 이후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 후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했으며, 처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처리사항을 중간 통보 하는 등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확보된 건의사항에 대해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도로기반시설 및 농배수로 등 시기에 해야 할 사업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사고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특히 "건의사항을 주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가 불가한 건의사항은 주민들을 만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과 이해를 병행해 달라" 고 강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중간 추진사항을 주민에게 통보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 추진

전망타워·군산항역 복원·철도테마공원 조성 등

군산시가 군산시간여행마을의 야간관광 명소화를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16일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망타워 조성' 등 4대 사업 추진을 통해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밤(夜)을 깨우는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소재로 조성된 '군산시간여행마을' 은 근대역사 박물관,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축제 등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여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간여행마을'의 전국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야간 볼거리 부족으로 인해 숙박·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망타워 조성, 군산항역 복원 및 철도테마공원 조성, 근대역사박물관 야간개장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푸드트레일러 명소 조성 등 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수청 사업인 내항호안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고군산연결도로 및 동백대교 개통에 맞춰 3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나운2동, 민·관 합동 융합

저소득층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군산시 나운2동을 비롯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 기관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고위험 군에 대한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를 조사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점 사례관리대상은 우울증·알코올·자살시도 중복자로 그간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던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주요내용으로 ▲나운2동은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복지·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종합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 관리 및 위기개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대상 조기발견 및 연계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사례관리의 공유·연계로 지역사회 문제 해소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송천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앞으로도 '정책과 서비스 융합' 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우체국 저소득층 만원행복보험 단체가입·무료 지원

익산시, 전북 도내 최초 민·관 협약 체결

익산시 영등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익산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6일 영등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체국 만원행복보험 단체가입과 무료 지원을 위해 전북 최초로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영등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공익형 보험가입을 위한 대상자 파악해 후원금 모금과 접수장소 제공 등을 실시하고, 익산우체국은 공익보험 계약자 재원마련과 상담·접수 및 계약과 보험관리를 추진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영등1동 주민의 지정기탁금액에서 단체보험료를 일괄 납부 처리한다.

이 보험은 우체국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15세~65세의 개별 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1구좌)을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를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보험혜택으로는 재해발생시 유족 위로금을 비롯하여 상해입원 의료비와 상해통원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뚝딱뚝딱 목공교실' 운영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엄마와 함께하는 뚝딱뚝딱 목공교실' 을 내일부터 5월 27일까지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목공 실습을 통해 아동들이 평소 사용해 보지 못한 조각 도구를 엄마와 함께 사용해 보며 관계개선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마련됐다.

목공교실에 참여한 드림스타트 6가정 12명의 엄마와 아동은 연필꽂이, 모니터 받침대, 스툴, 협탁 책장, 벤치의자 등 단 하나뿐인 목공품을 직접 만들어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드림스타트에서는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태권도, 피아노, 미술, 댄스, 우쿨렐레 등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